

제24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1시

## 제24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 ○의사팀장 박현주

(11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홍순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에는 구(舊)해운대역사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즐거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BTS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알려진 다뉴브강에서 침몰했던 유람선

## 2 (제242회-개회식)

이 인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장을 망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튀어나온 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같이 위로를 전하면서 정례회를 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해운대구의회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차별화된 의정 활동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의회가 되겠다는 초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성과로 주민들께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2회 정례회는 당면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감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백철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감사위원들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 적법성과 함께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손님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나도록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이번 제242회 정례회에 임말숙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과 최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사람중심 미래도시’의 실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 의지를 통해 올여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안전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 속에 이번 정례회가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폐식)